



한·중·일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 및 제5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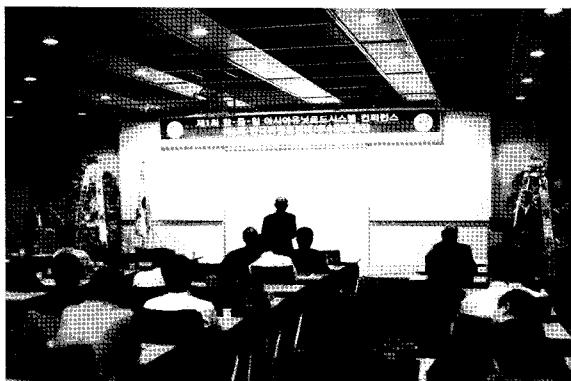
아시아 물류선진화를 위해서는 현대물류에 있어 가장 효율적 시스템인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 ULS)의 구축과 보급 확산이 시급한 과제다. ULS는 일관파렛트화와 컨테이너화가 그 핵심이며, 일관파렛트화와 컨테이너화는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표준화로 가능하다.

본 협회는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의 중요성과 구축방안에 대한 한·중·일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제5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을 갖고 개최하여 산업물류 혁신을 위해 표준파렛트와 컨테이너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이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하였다.

- 편집자 주 -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 개최되다

한·중·일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의 구축 전략과 국가물류표준화 추진방향에 대한 ‘제1회 한·중·일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 특집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과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물류협회,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중·일 3국의 물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각국의 ULS를 비롯한 물류 동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가물류표준의 이행 확산(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의 범회권 과장), △한국의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물류표준화 연구단의 권용장 단장), △한·중·일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과 APSF의 역할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의 박은규 부회장), △중국의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과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중국물류와 구매 연합회의 吳清一 주임), △일본의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전략(일본파렛트협회의 福本博二 전무이사), △한국의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전략(명지전문대학의 엄재균 교수) 등의 발표와 함께 동원 산업(주)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의 기업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사)한국컨테이너협회와 APSF(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한·중·일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컨퍼런스를 통하여 각국의 물류전문가들이 주체발표 등을 통해 한·중·일 3국이 아시아 ULS 구축의 주체로써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5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 함께 열려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

컨퍼런스에 이어 개최된 제5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에는 남인석 지식 경제부 기술표준원장, 김정식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서병륜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회장 등 파렛트·컨테이너업계 및 주요 물류설비 수요·공급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파렛트·컨테이너 표준화 이행 및 품질향상과 유닛로드시스템화에 기여한 유공기업체 등을 표창하여 국내 파렛트·컨테이너 산업의 표준화 이행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파렛트컨테이너 행사가 한·중·일 컨퍼런스와 함께 개최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내 물류설비 분야의 주요행사의 하나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 156여개의 응모 업체 가운데 파렛트 표준품질(생산)부문에서 대상인 지식경제부장관표창은 (주)골드라인이, 금상인 기술표준원장표창은 진성산업(주)이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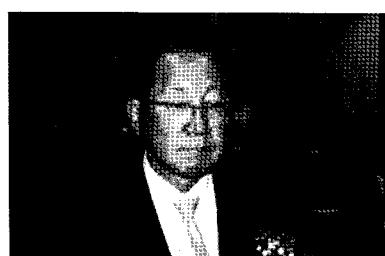
파렛트 유니트로드(사용)부문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표창은 동원산업(주)이, 기술표준원장표창은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이, 동상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상은 대왕제지공업(주)이 수상하였다.



컨테이너 표준품질(생산)부문에서는 기술표준원장표창을 (주)구광프라텍이 수상하였고, 컨테이너 유니트로드(사용)부문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표창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가, 기술표준원장표창은 부안유통새영농조합법인이,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상은 영주농산물유통센터가 수상하였다.

공로상 부문에서는 포장법인 정명의 이명훈 대표이사가 지식경제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파렛트 표준품질(생산)부문 대상(지식경제부장관표창) – (주)골드라인



물류표준화 및 일관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소재의 물류기기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인 (주)골드라인(대표 이홍기)이 제 5회 파렛트컨테이너대상 파렛트 표준품질(생산)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주)골드라인은 신



제품 개발 및 물류기기의 성능향상 노력, 물류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증대, 표준화 등 물류산업 발전에 대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ISO 14001환경인증서 획득을 토대로 기존 골판지 포장상자가 안고 있던 일회성 포장 및 자원낭비, 폐기물 발생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제 접착식 컨테이너 상자를 개발하여 물류 산업, 특히 유통부문의 전환점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주)골드라인은 1997년부터 한국컨테이너풀(주)와 공동협력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의 물류용기부문에서 공동 이용/회수가 가능하고 TRUCKING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틸소재로 된 접착식 형태의 파렛트를 선보였으며 2000년에는 3년간 10억여원 상당의 TWO-STAGE 부착방식의 미끄럼방지띠(Non-slip tape) 부착 파렛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01년에는 ISO9001, KS(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2002년에는 중국 및 선진국의 목재에 대한 방역 및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용 스틸파렛트를 개발했다. 2003년에는 T-11형의 일체형 파렛트화를 추진하여 중량을 낮추고 종전의 품질을 상회하는 제품을 출시했으며 2003년부터는 포스코와 공동으로 고하중용 내화벽들 적재 스틸파렛트를 개발했다. 지난 2004년에는 30만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평동 외국인전용 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 표준화파렛트 등 최신의 물류기기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2005년에는 중국 청도시에 독자 외상투자기업인 청도고덕리물류기재유한공사를 설립, 연간 30만대 기준의 철제 물류기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약 10여명의 연구 인력을 통하여 자동차부품기업/중국현지물류창고 및 신설기업 등에 물류컨설팅 및 공동 이용이 가능한 파렛트(컨테이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06년에는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에 적극 노력했으며 2007년에는 ISO14001의 환경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종전 골판지 포장상자의 한계를 극복한 접착식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개발하여 제품을 상용화 하였으며 제품 자동 인쇄기기 등을 함께 개발하여 자동화율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됐다.

현재 골드라인은 (주)로테코와 합작으로 중국 청도 래서시에서 컨베이어 및 물류자동화시스템, 오토리프트시스템, 텔레스코픽 로딩시스템 등 물류 자동화기기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물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내외 지속적인 물류 인재 교육과 신물류인 육성 프로그램(물류컨설턴트 과정이수)을 운영하고 있다. (주)골드라인은 'Logistics Core' 를 슬로건으로 하여 물류기기 및 시스템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을 표방하고 삼성테크윈과 공동으로 국책사업인 반도체분야 IT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 RFID TAG가 부착된 지능형 파렛트 및 물류기기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초대형 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 대형 복합물류센터 설계에서 운용까지 일괄서비스가 가능한 엔지니어링 사업군과 설비분야에도 업무 영역을 확대 시행하여 미래의 물류기기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파렛트 표준품질(생산)부문 금상(기술표준원장표창) - 진성산업(주)



파렛트 표준품질(생산)부문 금상을 수상한 진성산업(주)(대표 김경자)은 목재업에서 지난 1995년 목재 파렛트 포장BOX전문 메이커로 전환한 기업이다. 1997년에는 물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WT-11형(1100×1100)파렛트를 대량 생산 공급하기 위해 미국 VIKING사의 유압 자동기계 등을 수입 설치했다. 물류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유닛로드 일괄파렛트화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목재 원재료(원목)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목, 수입, 재가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20여 년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기술, 품질, 신용을 쌓아왔다.

1982년 명성종합목재로 출발한 진성산업은 1990년 파렛트 사업부를 창설했으며 1995년 1월 진성산업을 설립했다. 그해 3월부터 목재파렛트 영업을 실시했으며 5월 한국파렛트 풀(KPP)에 파렛트를 공급하고 KPP의 인천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물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1995년 코오롱(김천, 구미)공장에 수출용 파렛트 공급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코로롱 유화(인천, 김천)공장, 효성 B&H 구미공장, 한국티타늄 인천공장, 대한제당 인천공장에 수출용 파렛트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1997년 미국 VIKING사의 유압식 자동 파렛트 제작기기를 도입하여 대량 생산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6월에는 수입식물류 검사 장소 지정 인정을 받았다. 1998년 4월 현재의 인천 가좌동 공장으로 확장 이전 했으며 미국 SENCO사의 공압식 파렛트 자동제작기기를 도입해 설치했다. 1998에는 LG전선(주) 안양/구미 공장 LG화학 청주공장, 대림통상(주) 인천공장, 용산화학(주) 울산공장 수출용 파렛트 공급. 선창산업(주) 인천공장 등에 운송용 파렛트를 공급했으며 2000년에는 삼성SDI (수원)공장, LG생활건강(청주)공장, 금호석유화학(주)에 일괄 수출용 파렛트 및 woodn box를 공급했다. 2001에는 단일품목으로 국내 최초 ISO9001과 KS A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목재 파렛트, 포장재 대한 제조 서비스)했으며 이듬해인 2002년에는 목재 열처리 검역인증 국내1호 (KR-001)업체로 등록되는 성과를 올렸다. 2004년 ISO 9001:2000과 KS A 9001:2001인증을 추가로 받으면서 목재 파렛트 생산기업으로써의 위상을 높였다.

파렛트 유닛로드(사용)부문 대상(지식경제부장관표창) - 동원산업(주)

파렛트 유니트로드(사용)부문 대상을 수상한 3PL 전문업체인 동원산업(대표 김상



국) 물류부문(동원LOEX)은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물류업계의 물류 표준화 선도 기업으로 ULS(Unit Load System)을 위한 KS 표준 평 Pallet(T-11형) 활용, 평 Pallet 활용을 통한 보관 입/출고 작업 기계화 실현, 부품용기 및 포장 모듈화를 통한 Truck 적재 효율 향상, 표준화 업무 Process를 통한 원가 절감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 재고 및 물류원가 절감을 통해 물류 서비스를 질적 향상시키고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원산업(주) 물류부문은 3PL종합물류회사로서 다수 고객사(진주햄, 한성기업 등)의 물류를 대행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의 매출 신장과 더불어 고객이 만족하는 물류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3PL운영 프로세스 및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물류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연구소의 조직 및 관리력을 바탕으로 국내 물류산업을 한 단계 진일보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모든 사업장에 표준화 평 Pallet(T-11) 활용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DLIS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보관, 입/출고 하역을 표준화시켜 고객의 물류비를 절감 하고 원가의 절감개선에 기여했다.

1990년 파렛트 풀 시스템을 도입한 동원산업 물류부문은 1998년 국가표준 파렛트(KPP T-11형)를 채택/도입했다. 이듬해인 1999년에는 일관파렛트를 통해 보관, 입/출고 표준화를 정착시켰다. 같은해인 파렛트 수불 물류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06년에는 동원산업 물류부문의 통합파렛트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컨테이너 유닛로드(사용)부문 대상(지식경제부장관표창) -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



컨테이너 유니트로드(사용)부문 대상을 수상한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대표 노병용)는 첨단 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최고수준의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고 최신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협력업체, 물류센터, 점포 물류가시성을 혁신적으로 제고 시켰다. 표준파렛트 및 표준컨테이너를 적용한 유니트로드 단위 물류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물류표준화를 구현했으며 최첨단 H/W, S/W를 갖춘 물류센터에 최적의 물류운영 프로세스를 정립



했다. 이를 위해 물류관리 및 서비스 지표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물류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업무 메뉴얼, 작업표준서, 위기관리 시스템 등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및 보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표준화된 품질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했으며 물류정보의 일괄처리를 통한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파렛트 및 일관컨테이너화를 통한 물류제반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구현하여 높은 고객만족과 저비용의 물류구조를 구축했다.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사업본부는 상/저온 통합 연면적 기준 85,600m²의 오산물류센터를 지난해 11월 오픈 했으며 김해 물류센터를 추가로 오픈한 예정이다. 오산 물류센터는 국내 최고 처리능력을 갖춘 Auto-Sorter를 도입, 시간당 17,500 박스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 최대 580,000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최신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DMS(Dock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ASN(Advanced Shipping Notice),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도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차량 관리를 구현해 배송비용을 절감 했다.

또한 상온 표준 컨테이너 박스를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표준파렛트를 통한 물류센터 납품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처리속도 개선, 납품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박스 폐기물의 저감을 통한 친환경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저온 표준 컨테이너의 사용율을 높여 협력 업체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신선 상품의 품질경영에 일조 했다.

공로상 부문 대상(지식경제부장관표창) – 이명훈(포장법인 정명)



공로상 부문 대상을 차지한 이명훈(포장법인 정명) 대표는 30년 동안 포장분야에 종사하면서 여러 대학에 포장학과 설립과 포장기술편람을 발간하는 등 국내 포장기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또한 1994년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물류표준화 추진위원을 역임하면서부터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포장표준화기술지도 수행을 통하여 실무 전선에서 국가 파렛트 표준화율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이명훈 대표이사는 1979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포장개발연구원으로 입사한 이래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장기 연수를 통해 선진 포장기술을 습득했고 미국에서 포장교



육의 메카인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국내 1,000여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포장기술 지도를 수행했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용인송담대학 등에서 물류포장 강의를 오랜 기간 동안 담당했으며 실무분야의 포장기술 발전에도 노력했다. 현재 70여명 포장기술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물류활동으로는 1994년에 설립한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를 통하여 대상, 동원산업, 코오롱, 효성, LG 등 10여개 대기업에 3개월에서 1년간에 걸쳐 포장표준화 기술지도를 수행하여 물류비를 절감시켰으며 기술표준원 및 전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한 '전국순회 물류표준화를 위한 포장표준화' 강의를 통해 물류표준화 확장에 앞장섰다.

1994년부터 국가물류표준화 추진위원회 활동하면서 파렛트 표준화의 전제조건인 포장표준화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했고 1년 동안의 한국통신 포장표준화 지도와 6년간에 걸친 군수품 포장표준화 수행을 통하여 실무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실적은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농산물 표준화와 수산물 유통용기 표준화까지 이어지게 되어 다방면에 걸친 국가물류표준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의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 정착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KS물류부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근래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의한 국가물류표준화연구단에 참여하여 주요 산업에 적용하는 회수용 수송포장 표준용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